

88고속도로 4차선 11월 개통...동서교류 가교 기대

다음달 88올림픽고속도로가 확장·개통됨에 따라 영호남 동서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84년 2차선으로 개통된 이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데다 도로선형도 위험해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평균 2배 이상 많아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속도로'로 새롭게 태어나게 됨으로써 영호남을 더욱 가깝게 함과 동시에 동서교류의 가교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달빛동맹'을 맺고 있는 광주와 대구는 물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철도 건설에 공동으로 나서는가 하면, 전남과 경북은 미래 먹거리를 공동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세계적 백신클러스터 조성에 힘을 모으

로 하는 등 영호남 교류협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광주시와 대구시는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개통에 따라 문화·예술·체육 등의 민간 차원 교류를 최대한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는 양 지역민들이 서로 만나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스스로 지역감정의 벽을 허물어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 영호남 상생 먹거리 찾기 '속도낸다'

◇동서 잇는 철도 건설 및 수소 고속도로 조성=광주와 대구가 광주~대구 내륙철도 조기 건설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시도는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191km에 이르는 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철도 건설 예산에는 4조8987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광주시는 또 88올림픽고속도로 완전 개통을 맞아 2017년부터 동서수소 고속도로 조성 및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비와 시비, 민자유치를 통해 88고속도로에 수소 충전소 2개소를 준공하는 등 수소차량 운영 인프라를 구축해 목포~광주~대구~포항에 이르는 구간에 수소자동차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수소차 6대를 구매 의뢰해 놓은 상태다.

## 목포~광주~대구~포항 수소차 인프라 구축 전남-경북 세계적 백신클러스터 조성사업 유치 문화·예술·체육 등 민간 차원 교류 활성화 주력



2차선 도로에 중앙분리대도 없어 교통사고 사망율이 높았던 88올림픽고속도로가 오는 11월 말 4차선 도로로 확장 개통되면서 영호남 동서교류와 협력의 '주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경북 '상생협력'도 순항중=민선 6기 들어 지난해 하반기 새누리당 경북지역 의원들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역 의원들의 모임인 '동서화합포럼'이 재개된 뒤 전남도와 경북도가 상생협력 과제였던 ▲조선감염 역사고도 관광자원화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공동 유치 ▲국도 61선 주민간 교류 추진 ▲전남·경북 농특산물 331장터 운영 ▲공무원 교류 등이 추진 중이다. 이 사업 추진 모두 현재 순항 중이다. 조선감염 역사고도 관광자원화 회의 경우 올해부터 10년간 1000억원을 투입해 경북 상주시와 나주시의 조선감염 및

성, 향교, 산성, 역사길 등을 복원하기로 하고 용역 착수를 위해 양 시가 1억원씩 예산을 투입했다. 특히 안동 백신산업 광역클러스터 구축에 나선 경북도는 화순 녹십자공장 등 유일한 백신포를 가진 전남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23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국가백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2016~2020) 유치에 나섰다. 이밖에도 상호 공무원 교류를 시작했으며, 직거래장터 상호 개최도 이어지고 있다. ◇민간 차원 교류도 활발해져야=광주와 대구의 양 도시 애종단체의 교류공연과 문화단체의 문화탐방 교류도 이달부터 시작되며, 11월에는 영호남 성리학 대가 학술교류가 열린다. 양 지역의 시

립예술단도 11월과 12월 양 지역에서 교차 공연을 갖는다. 또한, 이달 23일에는 대구지역의 시민·단체들이 국립공원 무등산의 역사·문화탐방에 나서고, 내달 1일에는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대구 팔공산 탐방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광주와 대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각 40명씩이 이달과 다음달 각각 광주와 대구를 방문해 우수사업을 서로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전남도에서도 민간 차원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도 최단단인 독도와 최서남단인 가거도 섬 주민, 문화예술단체 등의 교류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지난달 23일 경주엑스포 공원에서의 '영호남 상생 장학금 기탁식'과 함께 지난 1일~2일 이틀간 경주에서는 광주·대구·전남·전북·경북보건의료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과 관련분야 전문가 1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결과 공동발표회와 실크로드 경주 2015 관광동서화합 행사'도 열렸다. 전남도 관계자는 "호남고속철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교통기반시설의 공급은 수요를 폭발시킨다는 점에서 88고속도로의 확장 개통은 영·호남의 다양한 관계 맺기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 지역이 서로 도우면서 그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hyunseokjisa.chadol@kwangju.co.kr

## '부지난'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지지부진

코레일, 30년 임대 후 기부채납·이익금 10% 요구 사업예정자 "광주시 매입 후 무상 임대"...市 난색

호남 KTX 개통 후에도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애초 규모에 비해 줄어든 2480억원 규모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지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개발 사업 자체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송정역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인 서희건설 컨소시엄 측은 지난달 사업비 1900억원, 지상 8층 규모로 축소해 1차 수정 개발계획서를 제출해 시가 검토 중이다. 서희 측은 앞서 지난해 12월 사업비 5000억원, 지상 11층 규모로 구상된 사업계획에 비해서는 줄어든 셈이다. 지난달 4차 수정 개발계획이 제출되긴 했지만, 사업 부지 문제는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소유한 코레일이 사업시행예정자의 수의매각·임대 요구에 2년여간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임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환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코레일 측이 30년 장기 임

대 이후 기부채납, 임대료 이외에 이익금의 10%를 요구해 사업시행예정자 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부지 임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희 측은 직접 임차 대신 광주시가 부지를 사들여 무상으로 임대해달라고 제안했지만, 시가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부지 매입에 따른 예산도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특히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는 지난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의 공모 시범사업에 선정돼 2014년 착공, 2017년 완공 목표로 추진됐지만, 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이정현 의원은 이날 제24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호남 KTX가 지난 4월 2일 개통했는데도 경제유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송정역 복합환승센터는 아직 착공조차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남민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대규모 민자를 유치해 교통환승 시설 등을 건립해야 하는 사업구조 때문에 전국 8개 복합환승센터 가운데 주변 상권이 발달한 동대구역을 빼고는 대부분 진척을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권일기자 cki@

## 흑산도 산림 면적 41% 망가뜨린 솔껍질깎지벌레 7년만에 퇴치지나

다도해국립공원 입장 바뀌 공동조사 등 합의

흑산도 소나무숲을 뒤덮은 솔껍질깎지벌레가 7년만에 사라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방제 방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산림청·전남도·신안군이 오는 14일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공동 식생모니터링 후 방제 방안을 협의하기로 최근 합의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솔껍질깎지벌레의 침범 이후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식생 변이 과정'이라는 이유로 방제 등 적극적인 방제에 반대 입장을 내놨었다. 12일 산림청, 전남도 등에 따르면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시범사업지를 정해 피해원인조사를 벌이고 이에 따른 솔껍질깎지벌레 방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제 등 적극적인 방제에 반대해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의 입장이 처음으로 바뀐 것이다. 첫 발생 이후 7년간 관련 기관 간 의견차로 인해 피해는 지난 2010년 78ha에서 올해 흑산도 산림면적 1535ha의 41%에 해당하는 631ha까지 확대됐

다. 이 중에서도 소나무 8만2000여 그루가 고사되는 등 92ha는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흑산도 예리 공항 예정부지인 기상관측소 인근 산림은 대부분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흑산도 진리마을 당산(堂山) 인근 둘레 1.5m 이상의 소나무들이 피해를 입고 절러졌다. 이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의 반대로, 전남도 등은 239ha에 대해 일부 고사목을 솜아내는 수준의 소극적인 방제만을 해왔다. 흑산면 관계자는 "흑산도의 역사와 함께 한 귀중한 자원이 사라지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산림청 이원기 주무관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의견이 좁혀져 세부 일정을 조율중"이라며 "방제 등 적극적인 방제에 나설 경우 산림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hadol@kwangju.co.kr /신안=이성진기자 silee@kwangju.co.kr

## 광주 區간 인구·재정 격차 극심...경제조정 시급

북구 44만7685명, 동구의 4.4배·살림규모 2배...주민 동의 등 난항 예상

광주의 자치구 간 인구 및 재정격차가 갈수록 커져 구간 경제조정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주민 동의가 선결돼야 하는데 총선을 앞두고 개리멘터링 식 경제 조정에 대한 잡음도 우려되는 만큼 추진에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광주시의회 조세철(동구2) 의원은 12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동구의 경우 북

구 등 다른 자치구와 인구 편차가 무려 4배 이상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동구 인구는 10만786명인 반면 북구는 44만7685명으로 4.4배에 달했다. 광산구도 39만7281명으로 거의 4배에 육박했다. 서구는 31만317명, 남구는 21만9815명이다. 면적은 도농(都農) 성격의 광산구가 222.90㎢로 전체 501.18㎢의 44.5%를 차

지하고 북구 120.30㎢, 동구 49.20㎢, 서구 47.79㎢, 남구 60.99㎢ 등은 비슷하다. 면적은 광산구와 북구를 제외하고 모두 엇비슷하지만, 인구 차이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체수입과 의존재원, 지방채 등을 더한 살림규모는 동구가 2502억원으로, 북구와 광산구 5358억원 과 5171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살림규모는 다른 자치구가 전년 대비,

최대 378억원(북구)에서 191억원(서구)이 늘었으나 유독 동구만 108억원이 줄었다. 이는 인구감소가 주된 이유로, 9월 말 현재 인구는 9만9900명으로 10만명선이 무너졌다. 광주 전체 인구는 149만 2948명으로 전년 대비 4000여명이 늘었다. 조 의원은 "인구가 줄다 보니 주민 1인당 조세 부담액도 19만원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최대 8만원의 더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균형 발전과 광주의 미래를 위해 하루빨리 주민과 행정, 지역정지권이 나서 구간 경제조정 논의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 당뇨망막병증

당뇨병으로 말초혈관 장애가 발생해 시력이 감소하는 눈의 합병증입니다. 당뇨환자는 정밀안저 검사를 통해 당뇨망막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 방법  
중증성 당뇨망막병증이 심해 안구 내 망막출혈이나 유리체에 출혈이 발생한 경우 레이저를 이용해 치료하거나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소아과/리식/라섹/백내장/녹내장/안과/안정형/노안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 세일신용정보(주)